

12 **광주일보**
제17523호 2006년 8월 11일 금요일



김명숙 작 '농악놀이'

한지의 멋을 찾아서

예지회 회원전 16일까지 창갤러리

한지 공예를 연구하는 예지회(회장 한경희)가 '한지의 멋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창갤러리에서 회원전을 갖는다.

15명의 회원들은 전통 한지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작품 60점을 선보인다. 한지로 만든 머릿장과 등잔대 등 생활용품과 다종이로 만든 인형 등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전시한다.

참가 회원은 김영옥, 나상례, 박수정, 박인숙, 박정녀, 변문자, 송경래, 신영선, 이광주, 이옥희, 임하정, 최윤정씨 등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이정록씨

제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로 사진작가 이정록(35·사진)씨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조각가 김일근(29), 회화작가 조 현(42), 회화작가 표인부(36)씨 등 3명이 뽑혔다.



(주)광주 신세계는 10일 "지난달 마감한 올해 공모전에는 단체 1건을 포함 모두 9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며 "남도적이거나 한국적인 특징들을 작품에 담겠다는 이씨의 포트폴리오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거쳐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 영상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방송과 출판의 '행복한 만남'

TV 인기프로그램·다큐멘터리 책으로 출간
원-원 전략... '스펀지' '그남자...' 등 베스트셀러



방송과 출판이 만나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KBS 코믹 지식프로그램 '스펀지'(왼쪽) 방송 모습과 MBC 드라마 '주몽'의 포스터 사진. 각각 왼쪽 아래에는 책 표지.

한영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역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발간하는 격주간지 '기획회의' 최근호에서 '스펀지' 출판을 맡은 동

아일보사 김현미 출판팀 차장은 "'스펀지'나 '비타민'의 출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방송과의 결합에 의해서가 보다는 '인포테인먼트

(information+entertainment)'라는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방송프로그램의 감성적 정보와 오락성을 심분활용해 활자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방송과 출판의 행복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출간된 '마음'(예담 펴냄)은 여간해서는 책으로 만들기 어려운 다큐멘터리를 재구성했다. '정신적 영역을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형상화한다'는 다소 생소한 컨셉으로 인해 방송은 대중성을 얻는데 고전했지만, 책의 경우 출간 3개월여 만에 1만 5천여 부가 팔렸다.

이와함께 라디오 방송이 책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MBC라디오 'FM 음악도시'의 한 코너가 '그남자 그 여자'(중앙M&B 펴냄)라는 동명의 책으로 발간돼 현재 3권까지 나왔다. 이미나 방송작가가 프로그램에 도착한 청취자의 사연을 각색해 엮은 것으로, 이 책은 현재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부 산다는 것'(위즈덤 하우스 펴냄)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사연을 엮어 13쇄를 기록 중이다.

이 밖에 '생로병사의 비밀'(가치창조 펴냄), '주몽'(황금나침반 펴냄), '위기탈출 넘버원'(밝은미래 펴냄) 등이 방송과 출판이 결합한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무등산·간이역서 퍼지는 음악

내일 무등산 풍경소리 공연 중심사 문화광장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 콘서트 무안 일로역서

이번 주말에는 무등산 자락과 무안 일로역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나보자.

무등산 풍경소리가 12일 오후7시30분 무등산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울려 퍼진다.

4주년 기념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의 초대손님은 재즈그룹 박우신 콰텟. 지난 2004년 결성된 박우신 콰텟은 피아노를 맡고 있는 박씨를 비롯, 이운석(드럼), 김동건(베이스), 김희은(기타)씨로 구성된 4인조 그룹으로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은 가수 박문옥씨가 출연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중심사에서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공연전에는 생명을 노래하는 송기행(010-6424-0869)이 무료로 진행하는 '풍경소리 숲탐방'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1시30분부터 김영선·정명애씨의 설명으로 중머리재와 중봉을 돌아보는 코스다. 문의 062-226-0107.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이 꾸리는 간이역 콘서트는 12일 오후7시30분 무안 일로역을 찾아가다.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은 무안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인 박관서씨, 철도고 졸업 후 23년째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 씨의 '꽃잎단장' 등으로 운상원문학상을 수상했고 시집 '철도원 일기' 등을 낸 바 있다.

'철도원 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보리, 황주일, 오영목, 김근영씨 등이 박씨의 시에 곡에 가락을 입힌 '무안역' '일로역 민들레' '에밀레'를 들려준다. 또 그림시로 만나는 '별', 포토에세이 '간이역에 뜨는 구름'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54-43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참가 '아이디' 일반 출연자 모집

17일 개막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인 광주 오페라단(단장 임해철)의 '아이디'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일반인 출연자를 모집한다.

오는 25일부터 4차례 공연되는 '아이디'는 외국 성악가들과 광주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대형 오페라로 사막의 피라미드, 암네리스 공주의 화려한 방 등 5톤 차량 24대분의 무대세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

오페라단은 라다메스 장군의 개신 장면에서 군사역으로 출연할 청년 30명을 모집하며 연습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062-531-32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p>수표 652-7544</p>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010-8427-9997 (유)홍길병 자동차 매매상사